

# 광주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중소 수출마케팅 사업 우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광주시전경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한국경영인인증원)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집중 설명하고, 참석하는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인증 적격 검증, 현장심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21일 오후 3시까지 가족

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장 당일 접수도 가능하며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유일한 정부 공인 인증이며,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인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중소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가길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고 있다.

신규 인증기준 점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이며 인증심사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100만원, 중소기업은 무료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생산제품과 명함 등에 가족친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

증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총 130개 기업·기관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혜택(인센티브) 외에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우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부여 △일반응역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북구) △가족친화인증기업 현관 지원 등 17개의 인증 혜택(인센티브)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고홍석기자



## 김영록 지사, 올 한 해 어업인 안전·풍어 기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2024년 완도 어선안전 기원 풍어제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무사안녕, 풍어와 만선을 기원했다.

이날 풍어제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완도지역 어선협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청해진 열두군고진범연 구회의 풍물공연, 연안 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 완도지역 어선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어린 감성돔 1만 마리를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어업 기반 조성 등에 힘을 기울여"라며 "풍어와 만선의 기쁨을 바라는 풍어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사했다.

이어 "전남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도록 친환경 인증 지원 및 수산물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 등에 집중, 미래 수산업을 선도하겠다"며 "또한 현재 예타 추진 중인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완도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어선어업의 안전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인양기, 부잔교 설치, 어선 노후장비 교체, 어선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주대규기자

# 전남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으로 안전한 지역공동체 만든다

## 이통장·주민자치위원 등 대상 양성평등 인식 하도록 진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을 안전 지킴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전남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해 이뤄진다. 교육은 12월까지 이장·부녀회·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00여 회로 진

행되며 지난 4월 25일 강진군 영암군에서 첫 교육을 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5월 중 이통장연합회 전남도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자주 대면하는 이장 등이 재난, 폭력 등 위기 상황의 주체자로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역봉사자로서 마을리더의 영향력과 역할 스타트업 20곳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이전 희망"젠더폭력에 대한 통념 성찰 스타트업 20곳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이전 희망"조력자로서 피해자 지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방안 등을 숙지하도록 진행한다.

강진 신전마을 이범선 이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폭력에 노출돼 상처 입은 이웃에게 내가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마을 안전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예방에 대한 도민 욕구에 맞춰 다양한 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스스로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마을 만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여성가족재단은 전남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도민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안전 지킴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발굴해 성적자기결정권, 경제 존중, 그루밍 등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이고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하도록 진로, 일상생활, 직장생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욕구별 소그룹 활동,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교육은 1회 교육 인원 20~100명의 도민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주대규기자

# 고령자·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추진

## 보조기기 실용화 공모 선정

광주시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 12억6000만원을 투입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에 나선다.

생활 맞춤형 보조기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및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 민간시장 중심의 보조기기 산업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광주시는 이에 공공영역에서 보조기기 사용자의 장애 유형, 신체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보급에 나선다.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에는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현장 실증, 사용성 평가, 인공지능(AI) 융합형 보조기기 개발 등을 수행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활 공학을 기반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 개발된 보조기

기를 양산화하는 원스톱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보조기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K-하이테크플랫폼 등 산·학·병·연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수요를 발굴·반영, 개발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개발 과정과 설계도를 개발에 앞서 보조기기의 개선과 재제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약 22만명)는 광주 전체 인구의 약 2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보조기기 사용자 중 24%가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없어 불편족스럽다고 답변해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술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융합형 보조기기 기술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홍석기자

## 광주시, 반지하·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광주시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반지하주택 20곳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시 건축·주택부서와 협의해 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우선 순위에 따라 20곳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자부담 5%를 제외한 최대 95%가

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위험이 높은 주거 취약 반지하주택의 경우 100%를 지원한다.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와 반지하주택 출입구 등에 설치한다.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은 "우기 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공간의 침수에 방 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으로 여름철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홍석기자



사랑의 밥차 업무차량 기탁식

7일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사랑의 밥차 운영 및 업무차량 기탁식에서 허정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회장, 문인 북구청장, 박재홍 (여)영무간선 회장, 송운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오른쪽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 미래車·에너지 등 '산업 옥죄는 규제' 손본다

## 6월부터 현장 발굴단 활동

광주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자동차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옥죄는 지방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남구는 3일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핵심 규제를 해소한 뒤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부서 규제 입증 책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기업 및 일자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을 꾸려 지역 내 경제활동

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 등을 방문, 기업가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각종 단체 및 협회 관계자를 만나 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찾은 예정이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 발굴단은 오는 6월부터 관내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대중동 일원 국가 및 지방산단과 송암산단 등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곳부터 찾는 이유는 중앙정부 및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 방안 발굴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이후로 분양계약 및 입주 기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지를 먼저 든 기업체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다 더 활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이 개선을 요청한 규제와 기존의 등록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선 요구 사항이 접수되면 곧바로 규제 소관 부서에 전달, 담당 부서에서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제안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밖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불필요한 절차 강요 등으로 상대에게 불이익 결과를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의 유연한 해석과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희망대출 사업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역상생과 민생 분야 규제 2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현익기자



푸드트럭5개소인재양성기금기탁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에 따뜻한 봄날에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축제장을 더욱더 따사롭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5월 3일 함평나비대축제 먹거리장터에 참여하고 있는 푸드트럭 5개소에서 1백만 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한 푸드트럭은 △영그리썬△옛날 전통떡△함평로컬푸드△레몬트리△조이앤커피 등 총 5개소로 이들은 나비광장, 먹거리장터 등에서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축제 방문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함평나비대축제에 일조해 주신과 더불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까지 기탁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맡겨주신 기부금은 함평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익기자